

광주 청년작가들 문학무크지 발행 '눈길'

'광주화루 공모전' 대상에 이동환 작가

그룹 '공통점' 동명 문학잡지 발간
2016년 조선대 출신 주축 출발
최근 발간 4호 '종말' 주제 상상력 다뤄
등단 구분 없애고 독자 참여 확대



청년 문학그룹 '공통점' 회원인 김병관, 이서영, 조운운(왼쪽부터).

"문학은 바로 이런 불길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직접 체험해볼 수가 없고 또 그리기를 원치 않다면, 다만 그들의 고순간 그 고통을 잠시나마 떠올려보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시와 소설이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문학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고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진실의 거울이 아닐 것이다. (중략) 동시에 지금 이순간의 어려운 현실을 그려내는 일은 고난이 종식된 이후의 희망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문학무크지 '공통점' 4호 머리말 중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
압축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장이 눈길을 확 잡아 끈다. 연일 코로나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통의 낯선 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메일에 담긴 "우리는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는 문장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생기발랄하면서도 진정성이 담긴, 상상력이 넘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장이 주는 힘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이 문학무크지를 4호째 발간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2017년 독립출판물 발간으로 시작해 올해 통권 4권을 발간한 청년문학예술단체 '공통점'이 그들이다. 젊은 작가들은 단체 이름과 동일한 무크지 '공통점'을 펴냈다.

조선대 출신인 이들 청년작가들은 지난 2016년 시작작 강의를 수강했던 인연으로 문학단체를 꾸리게 됐다. 현재 멤버는 모두 8명으로, 6명이 조선대 문장과 출신들이다. 신혜아름·김병관·김원경·김나연·이서영·조운운 씨는 2017년 공통점 창간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김현진·이기현씨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모임의 규모가 커졌다.

조운운씨는 "2016년 처음 시 창작 스터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다. 젊은 시절 우

리들만의 감성과 시적이 담긴 글을 남겨 책으로 발간해보자는 뜻으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당시 문창과에서 시를 가르쳤던 나희덕 시인의 지도를 받았다. 나 시인은 2019년 서울 과학기술대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문학을 매개로 소식은 주고받는다.

잡지 이름 '공통점'은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차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체가 지향하는 이름에 맞춰 이들은 대표나 회장이라는 직함도 따르지 않는다. 청년작가들은 당초 1호 무크지만을 발행하고 접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8년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에 선정되면서 2호까지 발간할 수 있었다. 이후 3, 4호에 이르렀고 앞으로 꾸준히 독립문예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3호까지는 동인지 형식의 잡지였죠. 콘텐츠는 대부분 청년작가 중심으로 조명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작가들을 제외하기도 했어요."

조 씨는 4호부터는 무크지 형식을 새롭게 바꿨다고 한다.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마지막 할머니와 아모르 강가에서'로 등단하기도 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지면을 만들기 위해 등단과 비등단 구분을 없앴다. 또한 공통점에서 활동하지 않는 예비 작가뿐 아니라 익명의 투고를 받는 등 독자



문학무크지 '공통점' 4호 표지

참여 코너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4호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불길한 상상력 '종말'을 주제로 한 코너가 눈길을 끈다. 종말에 대한 청년작가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담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 시대로 기억될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종말을 상기함으로써 공동체 의미와 연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이번 4호에는 김병관·김진선·류희석·박규현·양소정·장주영·정다연·정재욱 작가가 시를 게재했으며 김나연·김도경·류시은·위지영·이기현·조운운 작가는 산문을 실었다.

좌담 코너에는 김원경 작가가 기획한 '코로나 시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글이 담겼다. 시각예술단체 '머피' 소속 이철·정택용 작가, 그리고 신혜아름 작가가 청년 예술인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인터뷰 코너에서는 이서영 작가가 리소프린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각프레스'의 최지선 대표를 만나 여성 창작자로서의 고뇌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말에 5호도 발간할 예정이며 4호는 알라딘에 입고된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취업이 힘든 시대, 문학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애잔하면서도 아름답다. 매주 함께 모여 시와 소설을 공부하면서 문학 공동체로 성장한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향(文香) 광주의 전통을 이들 청년들이 꽃피우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동환 작 '삼계화택(三界火宅)'

첫발을 내딛었다.

광주화루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상자와 입선자의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광주화루 10인' 작가 전시를 열었다. 올해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전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 미술축제와 함께 '광주화루'가 열리는 우리 지역이 한국화의 진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며 "예향도시 광주'의 문화와 예술을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은행, 시상식 가져
한국화 작가 대상 공모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주최하는 제4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대상을 수상한 이동환 작가 등 5명의 수상자와 5명의 입선자가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받은 이동환 작가는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후 서울 지역에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광주에서 '칼로 새긴 장준하'전을 열기도 했다. 이 작가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과 개인전 또는 해외레지던시 참가를 후원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 정지현 작가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 우수상 수상자인 권세진·김명진·차현욱 작가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입선자는 윤준영·문현지·이여운·진민욱·허용성 작가다.

수상자는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포트폴리오 심사, 작품 심사,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정됐다.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한국화 공모전의



광주은행이 주최하는 제4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이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인형극 '물의 요정...' 순회공연 참여 학교 모집

교육극단 파랑새, 31일까지

교육극단 파랑새가 뮤지컬 인형극 '물의 요정 방울이' 순회 공연에 참여할 초등학교를 모집한다. 2020 미래세대 물 교육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뮤지컬 인형극 '물의 요정 방울이'는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소재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열린다. 뮤지컬에는 물을 지키는 물의 요정 방울이가 등장해 바다가 오염된 이유를 파헤친다. 방울이는 바

다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마녀가 이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녀의 지시로 강을 더럽히고 있는 개구리를 만나게 된다. 개구리를 쫓아낸 방울이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녀를 바다를 오염시킨 이유를 묻는다.

뮤지컬을 관람하고자 하는 학교는 오는 31일까지 전화(062-514-4328) 또는 이메일(etparangsae@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물의 요정 방울이' 공연 모습.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진흥위, 독립예술영화 예매 전용 사이트 오픈

'인디엔아트' 15일 선보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독립예술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가 오픈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함께 통합예매사이트 '인디엔아트'를 15일 선보인다.

'인디엔아트'는 독립예술영화를 쉽고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광주독립영화관을 비롯해 전국 9개 극장이 참여한다.

'인디엔아트'는 15일부터 PC나 모바일웹(www.indieartcinema.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22일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예매 사이트에서는 빠른예매 기능을 통해 좌석

지정과 모바일 티켓 입장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온라인 예매를 하면 발생했던 예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우리동네 독립예술영화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현재 상영 중인 독립예술영화 정보뿐 아니라 특별 기획전이나 관객과의 대화(GV), 전용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진행중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객 평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무비로그 기능과 지역별 특색 있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규회원가입시 영화관람권일 증정(선착순 1000명)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비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김치·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 062)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빌라·주택·상가·토지·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결)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키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화로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퀸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삼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단과,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복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
골동품, 석품,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어수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도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